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동지 회주상부	Publisher	Korean Dongji Hoi
발행소	931 노스킹 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Address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리 전 군	President	Chung Kun Lee
주필	김 창 월	Editor	Donald C.W. Kim
전화	850-849	Telephone	850-849
발행호수	1764	Subscription	\$10.00 per year
발행일	음력 구 8월 29일 금요일	Issue No.	1764
		Date	Oct. 10, 1969: Fri.

전쟁 반대 행동일을 앞두고 미국수뇌, 일련의 비에트남 협의 랏치 대사에 신지령

(워싱턴 10월 10일발 공동) 백아관은 9일, 6일 후에 단쳐온 비에트남전쟁반대행동일 직전에, 외교, 군사양면에 걸친 일련의 비에트남 실험의 돌한다고 발표하였다. 니슨대통령은 9일, 유가 귀국중의 반커 남비에트남주재대사와 회담하였다. 백아관대변인의에하면, 니슨대통령은 또 11일, 레아드국방장관, 힐러총합참모본부의장등과 회담, 힐러의장의 비에트남전류보도를 검토 하고, 이어 13일이나 14일에 파리 회담대표의 랏치 수석대표와 인대표와 협의한다. 이번의 협의는 니슨정부가 비에트남전쟁의 비에트남화와 회평교섭추진에 손을 다하고있다는 인상을 강하게하여 반대운동에 물줄을 뿌리고, 의회와 세론대책상의 배치를하려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보이는데, 동시에, 랏치대표에 새로운 지령이 있을 것도 주목되고있다. 힐러총합참모본부의장은 비에트남시찰 시에, 적의 싹봉세까지도 예상하고있는데, 레아드장관은 9일의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전우상태가 적의 래도라는 것은 말할수 없다" 라고 금후에의 기대를 남기고있다. 니슨대통령은 9월 26일의 기자회견에서, 요.치.민의 사망에의해, 하노이에 변화가 일어나고있다는 견해를 보였는데, 그후, 미국이 하노이에 침착을하였다는 보도에대해서는, 백아관대변인은 확신도하지 않고, 부정도하지 않았다. 또 미당국측은 중공이 소련과의 국경문제교섭에 응한것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원인이있다고하더라도 중공이 래도를 바꾼것은 적도라도 현실적방향에 향하고있다는 징조로서 주목하고있다. 이것은 중공이 변한다면, 하노이도 변한다는 기대를 갖게한다. 한편 스콧드공화당상원내총무는 5일의 레테비 회견에서, 비에트남이 사실상의 휴전에 움직일 가능성을 시사하고 7일에도 "무슨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묘한 발언을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니슨대통령이 랏치대표에대해서 될수있는데도 강한 조치를 지명할것은 충분히 예상된다. 니슨대통령이 힐러보고를 기초로 제차 철병년내발표의 방침을 세우고, 그것으로서 파리 회담추진을 지시할 것도 예상된다.

대통령에 ... 랏치대사에게

(워싱턴 10월 10일발, 에이피) 합동회견후, 니슨대통령과 회담한후, "대통령은 비에트남정책에 있어서, 오른쪽을 걷고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정책수행을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주어야한다" 라고 말하였다. (제2면에 계속)



(제 1면으로부터 계속)

니슨대통령은 비에트남 반전일의 직전인 13일이나 14일, 파리 확대 회평 회담의 랏지미수석대표, 하비 부차석대표를 소환하여 그의 할 예정이다.

미국역사상 최대의 반전행동 전개 15일의 반전일에 퍼지는 지지 소리

(에이.피.총합 10월10일발) 15일의 비에트남 반전일의 지지자는 점점 늘고있으며, 주최자측의 말로는 미국역사상 최대의 전쟁반대행동이 전개될것이다. 각주지사, 연방의원, 주회의원, 월급 고용인, 교사 그리고 많은 학생의 지지를 받고있다. 국회에서는 상원 17, 하원 47의 원이 "반전 지지성명"을 내었다. 9일밤에는 의사당위에 반전포시로서 미국국기를 걸고, 지지자가 한층많은 하원에서는 "철야국회"에 들어갈 기세를 보이고있다. 토켄달하원의원은 "미국은 시작이라, 시민 참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될것이다" 라고 말하고있다.

니슨대통령은 전주 "반전일은 비에트남정착에는 영향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애그뉴부대통령도 "반전일은 우수한 일이다" 라고 발언하였다. "물론 시민에는 반대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의 목표가 다르다. 반대시위는 파리 회담을 정돈시키고있는 북비에트남에 향해 히저야할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동부대통령은 10일당일에는 뉴저지지사선거의 케이힐공화당후보의 응원연설에 날라 갈 예정이었는데, "반전시위대의 목표가 된다" 라는 당 케이힐 후보의 응원사료요구를 받아 정지 하였다. 종교관계에서는 보스톤의 캣싱 주기정이 전미국의 교회에대해서 기념예배를하도록 호소 하고, 디트로이트대 관구에서도 단식과기도를 호소하고있다. 미국유태교장로의 중앙회의 회에서도 반대시위 지지의 태도이다. 대학에서는 휴업을 발표하였고, 뉴욕시교육위원회에서는 시내의 생도 교사에대해서 "수업을 중지하고 반전행동에 참가하여도조라" 라고 태도를 표시하고있으며, 이에 동조하는 지방교육위원회도 많다. 가주 윌리아 대학과 북캐롤라이나주의 듀크대학은 니슨대통령의 묘교인데, 여기서도 후배들은 "전쟁반대" 시위를하고, 현재 비에트남정착에대해서 "질탕과 증오" 를 느낀다 라고 대통령에 전보를 보낼 예정이다. 반전일 지지자를 표명한 주지사, 시장은 메인 주의 커-스, 로드아일랜드주의 릿트, 매사추세츠 주 서셉트의 켄지사, 뉴욕의 릿제, 디트로이트 의 가박노시장등이다. 10일당일에는 시위에 참가하는 단원 시민들은 4만명을 넘는 비에트남 전몰 병사를 추모하여 거대한 현장을 차고, 또 길에서 전몰병사의 영모를 일고하는데, 일.스트리트 에서도 거행된다. "반전일에는 휴업한다" 라는 미국배우 윌리아.애원잡은 예능인단도 나타났다. 부로드웨이에서 상영중의 "시생. 한번만 더"의 주석을 10일에는 휴업할 예정으로 단원배우에도 휴업을 요구하고있다.

제 3의 비에트남 철퇴안

(와싱턴 10월8일발, 에이피) 상원에서는 전에 컷델공화당의 윌리아에, "주비에트남 미군을 70년 12월1일까지 철퇴시킨다" 라는 법안, 후즈, 이같은 양원주당의원에게한 "60일 이내에 사이공 정권이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한 철퇴시킨다" 라는 절의가 제출되고있었는데, 이것에 이어, 8일 처치던 주, 윌스필드 공화당의 윈드 제3의 철퇴결의를 제출하였다. 처치.윌스필드안은, 전의 두안과는달라, 철퇴기한을 주지 않고, 니슨대통령의 철퇴계획의 속도를 비난하고, "미군이 계속 비에트남에 주둔하는 것은 필요한 정치적 화해를 연기시킬 뿐이다" 라고 주장하고있다. 이러한 평화파의 제안은 공화당내의 보수적인 의원들에게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공화당이 비에트남문제비판의 일시적지를 호소하고있는데, 공화당내의 보수적인 의원들은 공적속도를 느추지 않고, 27일부터 계속되는 상원의외위원회 (홀부라이드위원회)의 비에트남정착점도의 청문회에 가지가려는 것이다. (제3면에 계속)

(제 2면으로부터 계속)

동천문회는 이미 라자스국무장관이 증언하는것을 작정하고있으며, 레아드국방장관에게대해서도 증언을 요구하고있다.

철퇴계획 발표는 화평고성 방해

(뉴저지주 애트랜틱.시티 10월7일발, 에이피) 레아드국방장관은 7일 당지에서 열린 노동당대회 에서 연설하고, "미군의 일방적철퇴계획을 발표하는것은, 니슨대통령의 화평고성의 노력을 감소 시키는것이다. 미군의 철퇴를알면, 공산측은 교섭의 자리에서 현재보다도 더 양보하지 않게 되고, 철퇴할때까지 시간을 끌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노동당대회는 니슨대통령의 화평의 노력을 지지할 결의를 채택하고있다.

중공.소련 국경교섭에 합의

(동경 10월7일발, 에이피) 중공의 신 화자총신은 7일, "중소양국은 국경문제에대해서 회무차관 급에서 회담하는데 합의하였다" 라고 정부발표를 보도하였다. 회담의 장소는 북경의 예정인데, 일자는 검토중이라고한다. 동발표는 "중.소양국이 국경문제도 교섭할 이유는있다" 라고 화해의 태도를 표시하고, "국경문제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에 걸쳐서, 황제시대의 토시아제국주의의해 중공에 강요되었던 불평등조약에 발단한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이조약을 지키면서, 전면적 국경문제해결에 향할 용의가있다" 라고 말하고있다.

또 9월11일 북경공항에서의 코스이긴.주은래 회담이후, 중공은 소련에대해서, 두번이나 서한을 보낸것을 명백하고있다.

이스라엘 젯트기가 애랍 유격대기지 공격

(델라비부 10월7일발, 에이피) 이스라엘군사령부의 발표에의하면, 이스라엘 젯트기는 율단영 일비도 북동의 애랍 유격대기지를 공격하였다. 율단측의 발표에서는 민간인 8명이 사상하였다. 이스라엘기가 율단내부에 이리케 깊게 침입한것은 중동전쟁이래 처음이다.

몬트리얼에서 악몽의 하루

경관의 파업으로 무정부상태

(몬트리얼 10월8일발, 에이피) 캐나다의 몬트리얼시에서는, 7일 아침부터 경관 3천7백명과 소방사 2천4백명이 시당국에 넘긴 천9백불의 임금요구를하고 스트라이키에 들어갔다. 이대문에 전 시가 사실상의 무정부상태에 노이고, 등원된 케백주경관 8백명이 스트라이키에 참가하지 않은 상.경관 2백명파견이 경비에 담당하였는데, 락시운전수의 사수에 휩쓸려서 주경관 1명의 사상된 외에, 청년들이 가두에서 폭행을하고, 은행 10개소를 위시하여 각처에서 도난이 발생하였다. 케백주의회는 7일밤 긴급회의를열고, 경관, 소방사에 8일정오까지 직장복귀를 요구하고, 노동 조합지도자도 이에 합의, 몬트리얼은 8일 새벽에 정상상태로 돌아갔다.

해저비핵화조약 미.소 양국이

간담회의에 공동초안을 제출

(제네바 10월7일발, 공동) 제네바에서 7일 오후 7시까지 나카야미일본대표를 당번의장으로 열려, 레이놀드 미국, 모기찬.소련 대표, 그리고 다른 7개국으로된 "해저비핵화조약" 공동초안을 제출하고, 그의 조작성질이 핵발전소의 중요한 일보가된다는 취지를 강조하였다. 공동초안은 "12마일 이내의 해저에 핵병기 기타의 대량파괴병기와 그대군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제4면에 계속)



(제 3면으로부터 계속)

이해저조약문제는 작년 7월에 제네바군비축소위의 정식의제로서 채택되어 금년 3월에 소련안, 이어 5월에 미군안이 제출, 돌연히 군축의 초점으로서 나타났다. 미소는 군비축소위, 이어 국련총회의 도의를 경과, 년내성립을 기대하고있으며, 이종류의 조약으로서 바쁜 심의속도이다.

해저조약은 아직 핵군비경쟁의 입장장소가 되어있지 않는 지역에대해서, 미리 비핵회의의 약속을 하자는 의미로, 이미 성립된 "한국조약" "우주조약" 과 다친가지 제설에 속하는 "예방군축"의 하나이다. 다다라서 진실한 군축이라고는 할수없으나, 핵군축의 관련중요조치인것은 사실이며, 또 "부분핵정조약" "핵위난방지조약"도 포함해서, 미.소간의 정치, 전략상의 공존모순을 표시하는 것의 하나로서, 주목할만하다. 그러나 그한편, 미.소가 너무 급히 서둘러서, 각각의 동맹제국에는 명목만의 "용고"정도로 마치고, 비동맹제국에대해서는 거의 무시한 방식으로 일을 하여온 점은 금후에 큰 문제를 남길것이라고 생각된다. 제네바 군축위우 도의의 무대는 11월중순에 예정 되어있는 국련총회정치위원회에 옮기는데, 여기에서는 비동맹제국을 중심으로 미.소 이외의 중.소 제국의 불만이 도골적으로 나타날것이다. 그리고 미.소약초대국의 태도를 비난하고, 핵미사일 제한고섭조기개시를 위시하여, 본격적인 핵군축촉진을 요구하는 소리가 살아질것이 예상된다.

오기나와 이시 미국에 중요한 역할

(동경 10월8일발, 공동) 래일중의 윌리미용합참모본부의장은 8일오후, 동경의 수상편지에 사단수상을 방문하고, 오기나와의 전략적지위, 비에트남정세등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였다. 동의장은 미군부의 최고책임자의 입장에서, 특히 오기나와의 전략적의의를 강조하고,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 아세아에 군대를 주류시키고있는 미국에게, 오기나와는 군사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였다. 수상은 이에대해서 "나는 자위대의 최고책임자이며, 나라의 안전 확보에 밤아침 저녁으로 걱정하고있다. 방미시에는 양국민의 이해하에 결론을 낼수있을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답변하였다.

후로리다에 소련기가 착륙

(와싱튼 10월6일발, 에이피) 류바 공군제 1913비행대 에도알도.히메네스중위가 5일 배주, 소련제 미그 17전투-기로 후로리다주 홈스렛 미공군기지에 착륙, 광명하였다. 닉슨대통령은 5일, 동기지로 부터 30마일의 키비스케인에서 정양중이며, 동기지에는 대통령전용기 "에아.웁스.인"기가 대기중이었다. 국방총성대변인에의하면, 미그전투기가 테이다에 착륙후 몇분후에는 눈으로보이는 거리에 있섯기때문에 미군의 영격기는 출동하지안했다고한다. 발견이 늦은 이유로서 국방총성에서는 동기가 메시코만상 30, 40척의 저공비행을 하고있었다는것을 들고있다. 국방총성대변인은 닉슨대통령의 정양지 부근에서 이사건이 일어난것의 보안상의 문제이에대해서 많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미구기에는 40발의 37밀리총과 함께 160발의 케논총 2개와 히네메스중위의 9밀리 피스톨이 있섯는데, 착륙후에 미군에 인도되였다.

미국기 와 함정이 증공어선에 발포

(동경 10월10일발, 에이피) 증공은 미군기와 미함정이 혼킨만에서 증공어선에 발포하고있다고 비난, 최근의 사건은 10월4일에 발생하였다고 말하였다. 와싱튼으로부터의 보도에의하면, 미국 무성은 증공어의 주장하는 일자재 파리기, 함정이 혼킨만지역에 있섯다는것을 인정하고, 조사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치안

등지 외리사이시며, 와이아와지방에서 부지하여... 진병으로 와이아외병원에서 치료하시다가 시내 세인트.루웍스병원으로 이선 치료중, 만흔 차도를 보시고 정양중이시라고 한다.

